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수운 최재우 선생에게 강령한 하나님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지난 호에서 설명하였고, 결론 부분에서 승리제단의 하나님과 동학 및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같은 존재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승리제단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승리제단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면 구세주 조희성님의 설교 말씀 전체를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소원성취된다

###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첫째, 승리제단에서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르게 보고 있다.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가 아니라 하나님·아담·하나님·해와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뜻한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에 계셨기 때문에, 또한 에덴동산에는 아담과 해와가 계셨고, 에덴동산이란 하늘나라를 말하고,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사는 나라이므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며, 그 결과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아담·하나님·해와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는 에덴동산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유일신이 아니다

둘째, 승리제단의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다. 유일신이란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의 지고만 존재한다는 개념인데, 승리제단에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마귀 두 신만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의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마귀가 병존하는 혼돈의 세계였으며, 마귀가 하나님을 사로잡는 순간 사람을 비롯한 만물이 생성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마귀의 병존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은 생명, 생성의 신을 말하고, 마귀는 사망과 소멸의 신을 말한다. 즉 승리제단의 하나님은 사람과 만물 속에 존재하는 범재신론적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

###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하나님

셋째, 승리제단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조상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우연히 발생한 존재가 아니고, 또한 아메바가 진화하여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을 부정하며, 전능한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진 존재 또한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인과법칙에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근원과 뿌리를

캐들어가면 조상으로부터 연원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인간의 출현은 영적인 존재였던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결과로써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인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비롯한 만물은 소멸과 사망의 신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벗어나지 않는 한 소멸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 이기신 하나님이다

넷째, 승리제단의 하나님은 이기신 하나님이다. 일반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그 앞에 이겼거나 졌다는 수식어가 붙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다시피 하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져서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조종을 받는 존재였다. 그런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하나님이 출현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

은 태초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담·하나님과 해와하나님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되찾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이며, 이기신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과 이기신 하나님은 서로 다른 존재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승리제단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마귀와 대적하는 상대의 신이며, 또한 사람의 외부에 존재하는 외재성과 사람의 안에 존재하는 내재성을 가지고 있는 초월적 존재이다. 여기서 외재성과 내재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외재하는 하나님과 내재하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존재인가 아닌가 그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즉 외부에 존재하는 이기신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서로 하나의 존재로서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이다. 사람과 만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이므로 이기신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양자는 이기신 하나님과 이기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승리제단의 하나님은 인간의 성품을 초월한 존재이지만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생각을 조종할 수도 있고,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줄 수도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사람 속에 자유자재로 들락거리며 마귀를 죽이고 하나님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승리제단의 하나님은 기성종교에서와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

## 새로운 구원론 이기자 구세주의 구원론

종교를 믿는 이유는 구원을 얻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불교인들은 석가, 회교인들은 마호메트를, 그리고 각자 자신의 종교의 교조가 말한 구원의 방법을 믿고 있다. 승리제단에서는 그러한 구원론은 불완전한 것이므로 새로운 구원론을 가르쳐 준다.

### 이기자 구세주를 사모하며 바라보기

이기자 구세주를 소망삼고 그를 사모하며 바라보면 이기자 구세주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자신에게 오게 된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이치이다. 성령은 자신의 마귀를 죽이는 하나님의 빛이므로 이기자 구세주를 바라보면 마귀가

죽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된다.

### 이기자 구세주에게 맡기기

이기자 구세주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이기, 다시말하면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 극기승자(克己勝者)이므로 전지전능한 존재이다. 따라서 이기자 구세주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맡기면, 고통나무에 감나무 가지들 접붙이면 감이 열리는 이치와 똑같이 이기자 구세주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신의 진액이 자신에게 연결되며

하나님의 신을 모신 이기자 구세주의 지체가 된다. 이기자 구세주는 구원을 얻은 자이므로 그 지체도 구원을 얻게 된다.

### 하나님 되기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생의 확신이 100% 짝 찬 마음이다. 또한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항상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며, 모든 사람이 서로를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나

라가 회복되어 구원을 얻게 된다.

### 양심대로 살기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희생하는 마음이다. 양심의 발로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되어 구원을 얻게 된다.

###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기기

인류는 빈부귀천과 피부색의 구별 없이 한몸이므로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기면 너와 나를 분별하는 마귀의 사상이 없어져 지상천국이 건설된다. 지상천국은 구원을 얻은 세계이므로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기면 구원을 얻게 된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25>

###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밀실 안에서 아무리 노력 하니 너는 이긴자가 되었다고 허락함을 받고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장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희생제물로 삼아주셔요,

이것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 다 음에 죽어도 좋고 지옥에 던져도 좋습니 다. 이 기도도 내가 함이 아니요, 하나님 이 하신 것으로 쳐주셔요.”하고 기도를

받았던 것이다.

나를 꼭 천국에 보내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패자의 방법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전체를 희생하고 일초일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자가 이긴자이다.\*

### 발행인 칼럼

## 승리자를 본받자

구도(求道)는 우울하고 그늘진 마음을 버리고 밝고 쾌활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려는 몸부림이다. 밝은 마음은 왕성한 생명력에서 나온다. 구도는 자신을 희생하여 우주만물을 살리려는 치열한 희생이다. 나를 희생함으로써 생명력이 확장된다. 구도는 나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부처님)의 마음을 유지하려는 간절한 마음의 투쟁이다. 승리의 마음은 생명력을 강화시킨다.

### 승리자란 '나'를 이긴 자이다

승리자란 도를 완성한 존재이다. 승리자란 나를 버리고 하나님(부처님)으로 변화된 새로운 인간이다. 그래서 승리자에게는 음울하고 암담한 마음이 없고, 항상 쾌락 속에서 희열이 솟아난다.

당신이 만일 승리자가 된다면 슬픔 대신 기쁨이, 불만(不忿) 대신 평안, 나약함 대신 강함이, 불만 대신 만족이 마음 속에 샘솟게 될 것이다. 그는 모든 고통을 던져버리고 지극한 희열의 삶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존재가 될 것이다.

6,000년전 하나님은 마귀의 포로가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승리자 한 분을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6,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 마귀의 비밀을 캐내어서 그 마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셨으며, 드디어 그 무기를 사용할 승리자 한 분을 갈고 다듬고 키워서 출현시켰다. 하나님

의 첫 열매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승리자 조희성님은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승리의 메시지를 들고 오셨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다.

### '나'를 이긴 승리자에게 주는 선물이 영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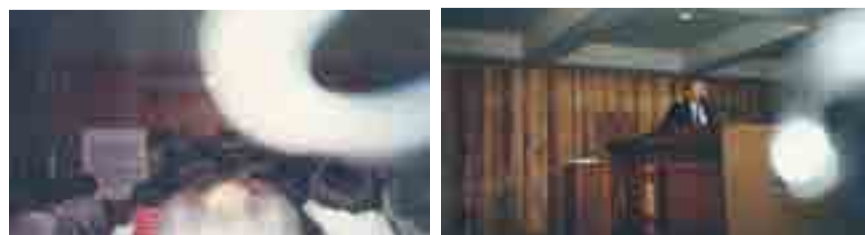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포상은 '영생'이다. 죽은 뒤의 영혼의 영생이 아니라 '살아 영생'이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승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포상을 준다고 기록하였다. 생명과 일찍이 먹지 못한 빵을 먹게 한다.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등등의 예언이 바로 그 포상인데 그 뜻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이다.

승리자 조희성님이 출현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다. 승리자는 1981년 8월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에 '승리제단'을 설립하여 영생의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였으며, 죽을병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하였고, 세계공산주의를 없애고, 한국에 태풍과 장미를 막고, 남북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고, 계속 풍년들게 하는 5대공약을 지키으로써 승리자 구세주가 분명함을 만천하에 알리셨다.

승리자 구세주는 분신(分身)으로 역사할 수 있는 바른 세상 인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데 천지공사의 순서에 따라 먼저 승리제단 신도들을 구세주로 만든 후 한국사람들을 영생체로 만들고, 그 다음 전 세계 인류를 영생체로 만든다고 인류구원프로젝트의 순서를 정하였다.

이러한 천지공사의 순서에 따라 승리제단에 많은 구세주 후보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인류 구원과 천국건설을 위해 구세주가 되고 싶은 구도자들은 이곳을 노크하시기를 바란다.\*

## 이슬성신이 함께하는 유일한 종교 승리제단



이슬성신은 불경에서는 감로(甘露)라고 하기도 하고, 격암유록에서는 감로해인이라고도 하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의 증표이다. 이슬성신이 함께하는 승리제단은 인간이 세운 일반 종교가 아니라 이기신 하나님이 설립한 참종교이다.\*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

해방 후 마지막 道人들의 역사!

##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

이 책을 읽고  
당신도 완성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삼신으로 완성된 한 사람이 출현하기까지 언내하고 견디낸 구도역정!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한반도엔 수많은 도인들이 있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기적을 보여주었던 한민족의 정통 道人들. 빈민 열저강경기 전부터 급속히 한민도로 들어왔던 기독교의 운학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찾아들었으며 공교롭게도 6.25전쟁 후 약속이나 한 듯 한국의 도역(道域)은 끊어지고 道人들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잊혀지게 되었다.

60년대 국내 최고의 기독교 부흥을 이끌었던 박태선 장로의 출생지 겸서 그 두 분은 기독교로 사적이며 최고의 부흥을 이끌었고 기독교를 부흥시켜야 할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마귀에서 키워낸 한 명의 道人 삼신으로 완성된 한 사람이 출현한다.

오늘날 많은 민족종교에서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 그런데 사랑 속에 하나님과 상대적인 마귀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른다. 지금의 사랑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중매인이기 때문에 혼란 문제가 발생한다. <추천사>에서 일부 발췌